

국회는 날마다 '소득주도성장' 공방

기재위 회의...여 '관련법 국회 계류...野 협조해야 성과' 야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 성과 없으면 전면 수정 필요'

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

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나경원 의원도 "이번 정부 들어 계속해서 고용이 악화되고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당 원내총무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이기도 하지만 그 정책을 바로 잡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성급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틀과 수단을 동원해, 공정경제·혁신

성장을 튼튼하게 잘 굴러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석 의원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 전방면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협소한 논쟁"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정우 의원은 청문회를 개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이 이어져 온 데 대해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처럼 엄청난 시기에는 부총리가 조금 신중히 용어 선택을 해 책임 얘기가 언론에 더이상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 걱정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부총리의 위상과 권한, 리더십을 분명히 세워 어려운 경제 난국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고, (효과를 볼때까지) 시장의 수용성이나 호흡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주도뿐 아니라 혁신성장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55.5%

리얼미터 민주 41.3%...55.9% "소득주도성장 찬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는 소폭 하락하며 55% 선을 유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p) 내린 55.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7%p 오른 41.3%로, 3주간의 하락세를 끊고 반등해 40% 선을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2.0%p 오른 21.9%로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지지율이 20%대로 올라선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정의당은 3주째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며 0.5%p 내린 12.8%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1.5%p 내린 5.8%, 민주평화당은 0.5%p 오른 2.9%로 집계됐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9%로 조사됐다. '전면 폐지' 응답은 33.4%, '잘 모름'은 10.7%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당권주자 토론회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SNS 매체 '위키투리' 주관으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학규, 하태경, 권은희, 정운천, 김명환, 이준석 후보. /연합뉴스

태풍 북상에 상임위 일정 올스톱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 청문회 28일로 연기

국회는 23일 범정부 차원의 태풍 '솔릭' 대응을 위해 애초 예정된 주요 상임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우선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운영위원회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8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의 공식적인 일정을 취소한다는 데 합의

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적지 않은 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국회 출석 대신 태풍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야는 결산안 의결 등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판단, 진행하도록 했다. 실제 교육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개의했다가 일찌감치 산회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D-1... 당권주자 기싸움 최고조

이해찬 건강 이상설 논란·대의원 명부 유출 공방 가열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결전의 날을 앞둔 23일 막판 신경전을 벌이며 상대 후보를 견제했다. 특히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전념하는 모양새다.

이날 세 후보 간에는 '이해찬 건강이상설' 동영상 유포와 여론조사 신뢰도 논란에 이어 대의원 명부 유출 논란까지 등장하며 공방이 가열됐다.

이날 김진표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이해찬 후보 소속 인사가 대의원 명단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가 대의원 명부를 입수해 경쟁 후보 두 사람을 음해하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 측도 이날 선거대책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현역 의원의 이

름을 날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따라다녀 불법 선거를 즉각 중단하라. 명의도용, 혼탁선거에 책임 있는 자에 즉시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송영길 후보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김 후보를 겨냥해 "배후세력에 얹혀있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전해철·정세균 이런 분들이, 이 후보는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한 김부겸·이재명 이런 분들이 지원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되더라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송영길을 선택해야 공평하고 공정하게 당을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경전 외에도 세 후보는 저마다 '대세론'을 주장하며 당선을 자신했다. 이 후보 측은 "초반과 같은 구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미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우리가 1위", 송 후보는 "대세론은 다 무너졌다. 이미 지난 것이 아니냐"고 '뒤집기'를 자신했다.

한편, 세 후보는 이날 예정된 당 대표 지상파 TV토론회 녹화를 긴급 취소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비상재난에 대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다음주 독일 뮌헨 출국

최소 1년 머물 듯

6·13 지방선거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내주 독일 뮌헨으로 출국한다.

23일 안 전 의원 측근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이날 초 독일로 출국해 2주 가량 머물다 지난주 초 독일 비자 준비 문제로 일시 귀국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현지에서 연구소와 학교 등을 둘러보며 유학 준비를 해왔으며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핀란드 헬싱키 등 인근 나라도 방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귀국한 안 전 의원은 현재 지인들을 만나는 동시에 출국 준비를 하고 있으며, 비자가 나오는 대로 독일로 재출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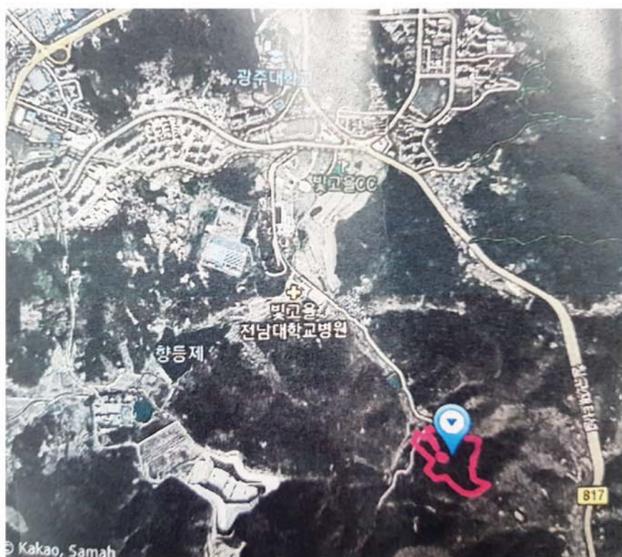
안 전 의원은 유학지로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의 주도인 뮌헨을 택했다. 현지 유명 연구소를 기반으로 유학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여건이 되면 현지 학교와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전 의원은 독일에 얼마나 머물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출국으로 현지에서 최소 1년은 머물 것이라는 게 안 전 의원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로 떠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행선지를 독일로 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나라이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이고,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